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11

2004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시편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세광대학교 충현교회
장근희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11

2004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시편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도제목

1.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고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게 하소서.
2. 우리 교회가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모든 교회 일꾼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4.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이를 통해 교구가 성장하여 교회가 진정한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5. 새벽기도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욱 힘있게 하시고, 5부예배를 통하여 젊은 일꾼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게 하소서.
6.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저희를 써 주소서.

용 기



사백인의 거짓 선지자들과 왕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앞날의 성공을 확인해 줄 길한 예언을 기대했을 때,
다른 선지자들과 똑같이 설교해 줄 것을 요구했을 때,
조금도 주저치 않고 담대히 입을 열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말하리라”
대답했던 선지자 미가야의 외로운 용기(왕상 22:13-14).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채찍과 칼과 권위로 위협하며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도 가르침도 행하지 말라”고 강압할 때,
고개를 꺾고 돌고 두 눈을 부릅뜬 채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외쳤던 제자들의 우직한 용기(행 4:19,20).

자신들을 기쁘게 해 줄 것을 요구하던 대중의 힘 앞에서,
대중을 만족시키려 조금씩 양보하던 설교자들 틈 속에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을 것도 각오하며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말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의 처절한 용기(갈 1:10).

외로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힘겹게 올라가신 주님과
주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왔던 그들의 영적 후손을
이제는 어디서 만나볼 수 있을까?

세월이 흐를수록 세상의 세력이, 죄악의 세력이, 마귀의 권세가 강력한 힘으로 우리들
을 위협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충현의 모든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곳곳이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2004년 11월을 맞이하며 위임목사 김 성 관



이 용

이 용

이 용

이 용

이 용

이 용

이 용

이 용

이 용

이 용

이 용

이 용

이 용

이 용

이 용

이 용

이 용

이 용

이 용

이 용

이 용

이 용

이 용

이 용

이 용

이 용

매일성경묵상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 119:105)

본 시편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보호와 인도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죄로 인해 실패하였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과 수고를 감당하고 있는 죄인을 향한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들이 죄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시인은 죄악이 우리를 이기었다" (3절)라고 말합니다. 결코 운택하지 못한 초장이나 어려운 삶의 형편이 자신들을 이기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사귄에 실패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참한 실패로 인생이 끝남을 말하지 않습니다. 시인은 실패보다 더 놀라운 사실을 노래합니다. "우리의 죄과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3절). 우리에게 임한 은혜는 죄에 대한 면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부르시고 당신의 뜰에 살게 하시며 그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게 하십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4절).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할 때 놀라운 주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섭리와 간섭을 체험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의 사귄은 더욱 깊어지고 친밀해집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의 의지할 주께서 의를 좇아 엄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3-5절).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 10:15).

기도 제목 / 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소서. ②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시편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나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내 안에 복음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내 안에서 생명과 썩지 아니 할 것을 나타나게 합니다 (딤후 1:10). 이 놀라운 은혜에 감격한 시인은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5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으로 주어진 출애굽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찬양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죄악된 세상에서 승리하고 장차 올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합니다. 시인은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 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9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영원히 죽을 수 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내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아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결코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대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시인처럼 은을 단련하는 시험같이(10절), 허리에 무거운 인생의 짐들을 가지고 있어도(11절), 우리의 머리를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고통(12절)이 있어도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12절)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원한 주의 행사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자기의 일로 삼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로다” (16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복음으로 고난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골 3:15)

기도 제목 / ① 예수께서 주시는 평강을 힘입어 복음전파에 힘쓰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 이 복음만을 전하는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시편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온 세계에 전파되기를 기원하고 있는 시입니다. 특별히 본 시는 이스라엘의 장막절 기간에 낭송되었고 후에는 추수 감사 찬양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구원의 은혜가 결코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모든 열방에게 전파되는 것이 주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본 시의 구성은 하나님의 구원의 도가 만방에 전파되어 세계 만민이 주를 찬양할 수 있기를 비는 간구 부분(1-3절), 열방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섭리를 깨닫기를 간구하는 부분(4절), 열방이 만민에게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깨달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외할 수 있기를 소원(5-7절)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의 기원은 사망을 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현되어지고 있고 그 사명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졌습니다(마 28:18-20). 따라서 복음전파의 사명은 모든 시대와 공간을 뛰어 넘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성령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빌 2:13). 세상으로부터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취사”(시 67:1)

기도 제목 / 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②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담당자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준비된 헌신이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시편은 하나님으로 인한 최종적인 승리를 확신하며 찬양하는 시입니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질 궁극적인 승리와 보호와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18절). 이것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보호하심을 얻게 합니다. 이렇게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에 대하여 시인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19절)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이 주는 실패와 어려움이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꺾박을 받아도 …”(고후 4:8-9).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우리의 죄요 그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우리 짐’이란 범죄한 인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겪는 고초와 그로 인한 고통 및 근심이나 또는 죄악을 말합니다(민 11:11). 하나님께서 이러한 짐을 날마다 지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영토록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찢리시고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그 몸이 상하셨기 때문입니다(사 53:4-5).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운데 오직 바라고 소망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히 12:2)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거니와 …”(시 68:20)

기도 제목 / 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게 하소서. ② 충현 교회가 민족복음화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시편은 다윗의 인생 말기를 배경으로 한 시입니다. 다윗은 노년에 자신의 아들에게 반역을 당합니다. 그로 인하여 영육 간에 매우 곤고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다윗은 본 시 속에서 곤고하게 된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탄원하며 구원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는 죄인을 위해 고난 당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택한 백성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시고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로 낮아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사건이며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고난으로 상징되는 물이 자기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다고 고백합니다(1절). 지금 다윗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바쳤습니다(2절). 다윗은 계속하여서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호소합니다. (3-4절) 그러나 그 탄원이 자신의 인생의 비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섭리와 자신의 고난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메시아의 고난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우매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내 죄가 주의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5절) 그리고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29절)라고 고백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있다면 눈을 들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 받아 주를 위해 힘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갈 6:14)

기도 제목 / ①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십자가를 전하게 하소서. ②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애원으로 시작됩니다. 시인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급박하며 신속한 도움이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시인은 어떤 배경 설명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1절). 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급박한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쉽게 자신을 비관하고 다른 사람들의 조건과 자기 자신을 비교할 때가 많고 지나간 시간들을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권고는 염려하지 말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벧전 5:6-8).

시인은 매우 위급하고 극박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요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한 순간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인의 고백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니 여호와여 지체치 마소서”(5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임재와 보호를 의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단 9:19). 아멘.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옵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단 9:19).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하소서. ② 당회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회교를 온전히 섬기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시편은 아들의 반란으로 쫓기는 다급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간구하고 있는 시입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추억하며 현재와 미래에도 베푸실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5절). “나를 늙은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에 떠나지 마소서” (9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더욱 찬송하리이다” (14절). 그리고 시인은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한 시인은 이제 더 이상 고난이라는 착고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의와 구원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와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의 곧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15-16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자복하며 회개한 사람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그 문제에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포기나 체념도 하지 않습니다. 고난에 정면으로 대응하면서 구원의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의 의에 대하여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얻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인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로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가성의 여인처럼 뛰어나가 예수를 주라 증거하게 됩니다(요 3장). 고난과 시험 가운데 있다면 자신을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를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죄인을 위하여 드러내신 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 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딤후 1:12).

기도 제목 / ① 고난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으로 서게 하소서. ② 모든 예배와 집회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시편은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완전한 평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 나타났고 실제적인 능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행위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통치입니다. 이 통치하심은 우리에게 놀라운 평강을 줍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 14:27).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롬 5:1)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줍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통치는 참된 공의를 실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의롭고 진리가 되시는 분이므로 모든 일을 공의로 판단하시고 가장 공평하게 대우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시고 죄인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슥 3:5). 비록 현재 다소 불의한 상황이 남아 있고 주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듯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공의와 불꽃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살피시고 판단하고 계시며 끝내 모든 것을 공의로 갚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즐거워 할 수 있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롬 5:4).

기도 제목 / ①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교회 직원들이 선한 청지기로서 맡은 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시편은 악인이 형통하는 모순된 현실에 대하여 아삽의 입을 통하여 지혜를 알려주고 있는 시입니다. 시인은 모순된 현실로 인하여 깊은 탄식을 토합니다. “불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 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히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12-16절). 이러한 고백은 시편 기자의 고백만은 아닙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역시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 속에서 악인이 형통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이 문제로 인하여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시인 역시 이 문제로 괴로워합니다.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16절). 그런데 시인은 그 문제의 답을 하나님 앞에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17절).

시인은 깨닫게 됩니다.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며 비록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구하지 못하며 종국에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시인은 부활의 주요 심판의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20절). 사람이 꿈꾸는 동안 그것이 현실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꿈을 깬 이후에는 그 꿈이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날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불타 없어지는 것을 따라가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요일 2:17)

기도 제목 / 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② 교회 일꾼들이 성령을 받아 충만하여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시편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된 참담한 상황을 목격한 아삽 자손 중 한 명이 하나님께 민족의 구원을 간구하는 시입니다. 그러나 본 시에는 이 땅에서 고난 당하신 그리스도와 세상과 죄와 싸워야 되는 교회와 성도를 위한 탄원시이기도 합니다. 시인은 대적의 모습을 “저희는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5절)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 땅에서 죄가 승리하여 아무 힘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완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사단의 승리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 나사 부활의 주가 되셨습니다.

본문은 바벨론과 싸울 힘이 없는 유다의 백성들을 ‘멧비둘기’로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것은 ‘들짐승’입니다. “주의 멧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영히 잊지 마소서”(19절). 들짐승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존재가 멧비둘기이지만 그것의 소유는 주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들짐승의 위협이 있지만 결코 가난한 자의 가장 소중한 것은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롬8:35). 비록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과 같은 고난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리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여감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됨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히 13:8).

기도 제목 / ① 환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역을 전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성경은 오만함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거스리는 것이며 교만함과 마찬가지로 행함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본 시도 이런 성경의 교훈처럼 교만하고 오만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7절).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자들을 감찰하시며 그 행위를 지켜보시고 종국에는 그 행위대로 보응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스스로가 높아지기 위해 자신의 힘과 지혜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람이 존귀하게 되거나 비천하게 되는 것, 흥하거나 망하게 하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역사의 배후에는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아무리 스스로 높아지려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추시면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재판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을 보여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스스로 낮아져서 인간의 몸으로 고난과 수모를 담당하셨습니다. 종국에는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어 만왕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빌 2:6-11).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이 우리 모든 성도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 겸손함이 있을 때 우리는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는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겸손을 깨닫게 하소서. ② 찬양대원들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영적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을 지키시는 주님의 능력에 대한 찬양시입니다. 악한 자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꺾고 자기 백성을 지키심으로써 백성들의 경배를 받게 된다는 시입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만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려 일어나신 때에로다”(9절). 주님은 언약 백성의 대적자를 철저히 깨뜨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분은 대적자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십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온 세상을 죄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구원자임을 보여주십니다. 최종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또한 누구를 위해 이 구원을 베풀어주시는 것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모든 온유한 자’ 입니다. 온유한 자는 환난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원망하거나 불평없이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즉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의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한 자를 위해 때가 되면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 속에서 온갖 시련과 핍박이 닥쳐와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겸손히 주의 구원을 바라며 인내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온유한 믿음을 소유하여 주님만이 진정으로 경외해야 할 분이심을 믿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으로 경외할 자임을 믿게 하소서.

기도 제목 / 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천국일꾼 양성에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시는 극심한 환난이 계속되어 영혼이 피폐해진 사람이 고통과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고난의 심연 속에서도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의 역사를 기억함으로써 다시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을 바라는 믿음을 표현하는 시입니다. 그는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10절)라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이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주신 은혜를 부정하고 의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심이 내 마음에 밀려올 때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이 연약함 때문에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지존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존자의 오른 손의 해’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때를 가리킵니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사를 회상하며 자신의 마음에 생겨난 의심을 제거하고 더욱 담대하며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상황이 열악할수록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 때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나가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히 4:15).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온갖 연약한 점을 다 체험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십니다. 그 분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히 4:14).

기도 제목 / 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원들이 ‘단기선교’를 믿음으로 준비하며 협력할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시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영적 교훈을 제공해 주는 역사시이며 교훈시입니다. 단순한 역사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 즉 불신앙과 반역을 다룬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의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선조들이 범한 실수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한 시입니다.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6절). 시편기자는 후생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불순종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믿음에서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체적으로 후생 자손에게 남겨 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7절). 참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해주는 일입니다. 후생 자손들에게 물려줄 것이 많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거둬나게 하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둬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벧전 1:3). 따라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후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영원한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하는 일입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산 소망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엡 6:4).

기도 제목 / ①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게 하소서. ② 남녀 전도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대적에 의해 잔인하게 파괴당함으로써 그 대적자들이 여호와와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탄식하며 적들을 징벌함으로써 주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이 시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에게 짓밟힘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고 그 이름이 모욕을 당한 사실로 인하여 슬퍼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9절).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나라에게 모욕을 당합니다. 또한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은 구원할 능력이 없는 분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분명히 떨치고 일어나셔서 원수를 멸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이방 나라의 모욕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해 이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것은 그분의 완전한 은혜 때문입니다. 인간의 의로운 행위나 경건함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죄를 회개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치료하시기 전에 먼저 죄 용서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마 9:2, 막 2:5).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 진정한 통회와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통회하는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② 캄보디아에서 단기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정희정, 김진경 자매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시는 이방 군대에 의해 파괴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를 위해 시인은 이스라엘을 돌이켜 주시도록 간구합니다.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취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3절). 본 시에서 이 구절은 3, 7, 19절에 반복하여 나옴으로써 후렴구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만큼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돌이키라’는 말은 복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달라는 말입니다. ‘주의 얼굴빛을 비춘다’는 말씀은 그분이 호의를 갖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 돌아와야 하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비쳐주시기를 바라는 ‘주의 얼굴 빛’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 속에 비취는 사랑의 빛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에서 나오는 빛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있을 때 위로의 빛이 비취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위로는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위로는 큼니다. 그 위로가 큰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 영원한 승리자, 도움을 주시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것은 바로 낙심과 좌절입니다.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의 빛으로 다가올 때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시는 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소망의 견고함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갈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고후 1:5).

기도 제목 / ①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교회 각 분야에 봉사할 ‘신실한 일꾼들’을 많이 허락해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시는 아삽이 지은 시로 유월절이나 초막절 같은 민족적인 큰 절기에 불려지던 찬양시입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을 향해 주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1절).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그 분께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분은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시 최강대국 애굽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은 자신이 전능하고 참된 하나님이심을 만방에 입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진심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여기서 ‘높이 노래하며’는 큰 소리로 찬양한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의 감격과 벅찬 감동의 외침을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사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합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얻고 소유하며 즐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알게 되어 누리는 기쁨과 만족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며 헛된 것뿐입니다. 세상에서 얻는 즐거움과 풍요와 권세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결국 세상의 것들로는 완전한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하고 불만족과 허무감만을 남길 뿐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얻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만이 만족과 기쁨과 평안함을 영원토록 넘치도록 풍성하게 완전하게 주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예배드리는 귀한 성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 ① 사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일들이 기도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좇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시는 불의한 통치자들과 재판장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능력은 최고의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통치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하여 악을 조장하며 다른 이들을 불공정하게 다루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불의한 세상에 대한 심판을 호소합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판단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이 되겠음이니이다”(8절). 하나님만이 공의의 재판관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이 공의의 재판관이 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천지 만물의 창조자요 주권자이시니 당연히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실 분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 세상은 불의한 자가 승리하고 번영하며 안락을 누리게 됩니다. 반면에 의로운 자는 수치와 고난을 당하며 조롱받으며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통치하실 때에 이 세상에는 마침내 완전한 정의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로다...”(계 11:15)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우리는 세상의 악과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에는 세상에서 손해도 보고 핍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감당할 힘과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에서 참된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나타나게 하소서, ② 이웃을 향한 구제와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시는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원수들이 음모를 꾸밀 때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입니다. 그 음모는 이 땅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차지하시는 위치를 빼앗으려는 계획이기도 합니다. 시인은 이 계획 속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침묵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여 침묵치 마소서 하나님여 잠잠히 말고 고요치 마소서”(1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유대를 대항해 연합군을 만들어 공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왜 침묵하시는지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 분의 침묵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지 않으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갈 4:4). 인간의 구원계획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가 드러나지 않은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불의와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 종교지도자들과 세상을 즉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을 쓰시면서 침묵하셨습니다(요 8:6).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침묵은 영원한 침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가 되면 이 침묵은 심판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최후 심판을 바라보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사 55:9).

기도 제목 / ①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 심판하실 때까지 십자가 복음만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각 나라에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에 대해 노래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계신 곳, 즉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보호와 축복이 있는 곳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1절). 시인은 성전을 ‘주의 장막’ (1절), ‘주의 궁정’ (2,10절), ‘주의 집’ (4절)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시인이 사모한 실체가 성전 건물 그 자체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신령한 은총을 의미합니다. 성전 건물 자체는 사모의 대상도, 경배의 대상도 될 수 없습니다. 성전이나 교회가 가치있는 까닭은 그 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로 하나님과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은혜의 전달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참 성전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이십니다. “...예수는 성전 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요 2:21).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막혔던 담을 허무시는 분이십니다. 성도와 성도간의 교제가 넘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안식과 진정한 교제를 주는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밑에 거하시려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쉼 곳 찾았네!

기도 제목 / ① 우리의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②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열심을 회복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난 후에 지어진 것으로서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1-3절)와 지속적인 회복에의 간구와 소망(4-13절)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죄에 포로된 우리들을 해방시켜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분노를 거두시고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이처럼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다시 망령된 데로, 허탄한 길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단순히 현재의 고난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우리로서는 다 헤아릴 수도 없는 크고 영광스러운 미래, 온전히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13절 말씀(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주의 종적으로 길을 삼으리로다)처럼 주님 가신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 고난의 길을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다시 망령된 데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주님 가신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소서. ② 단기선교를 통해 전 교회가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장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시는 교만하고 포악한 대적들의 공격에 직면한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호소한 시입니다. 다윗은 먼저 자신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곤고하고 궁핍하오니…”(1절a). 다음으로는 간구의 내용이 나옵니다.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2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1절b).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3절b).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4절a). 그러나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다윗이 간구하는 그 간구의 근거가 무엇이나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하여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6절). 즉, 하나님께서는 죄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인자하심이 넉넉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15절). 그러시니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달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신들 중에 하나님과 같은 자 없고 주와 같이 행하실 수 있는 자가 없으며(9절), 고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라고 고백합니다(10절). 여러분은 무엇에 근거하여 기도하십니까? 나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나의 욕심이 아닌 인자와 긍휼과 은혜와 진실의 하나님, 그 속성에 근거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인자와 긍휼과 은혜와 진실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② 단기선교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만나는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시는 장차 나타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의 노래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결과, 유대를 초월하여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청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것은 교회시대를 통해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 (3절)은 일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나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질 신약시대의 교회 또는 종말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본문을 보면 먼저, 이 하나님의 성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 기지(터)가 성산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성이 영광스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은 과연 누구로 말미암아 세워지며, 누구를 통하여 건설되는 것입니까? 바로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것입니다.

4절에 나오는 '라합'은 '애굽'을 가리키는데, 46절 말씀을 보면 믿는 모든 이방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에서도 "나의 모든 근원이 네게 있다"고 말하는데 이 역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의 우주적 참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롬 10:13).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기 때문입니다(시 62:1).

우리는 오직 구원의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시는 고라 자손 찬양대의 지휘자였던 '헤만'의 시로 시편 중 가장 애절한 비탄시로 꼽힙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늘 고난이 따릅니다. 육체적인 고통(3, 4절), 신앙적인 고통(5-7절), 사회적인 고통(8절) 등. 특별히 사회적인 고통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본 시편 8절과 18절을 보면 이를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아는 자로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로 저희에게 가증되게 하셨사오니…”(8절a). “주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18절a). 나의 아는 자가 나를 멀리 떠나며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이 내게서 멀리 떠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이 나를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부모와 형제가, 친구들이, 직장동료들이, 나의 친지들이 나를 외면하고 떠나며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에 대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요 15:19).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이와 같은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따라오는 너희가 나와 같은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하십니다(마 10:24).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은 그 고난과 핍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상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마 5:11).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고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기도 제목 / ① 고난과 핍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② 협력선교사(이집트의 하요셉)가 지속적으로 일하며 구체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시는 지휘자 '여두둔'과 동일 인물로 추측되는 '에단'의 작품으로 '애굽 왕 시삭의 유다 침공사건(왕상 14:15-18; 대하 12:1-12)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과거 다윗에게 주신 언약(삼하 7:8-16)과 모순되는 듯한 현재의 환난에 대하여 여호와께 아뢰며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다윗 왕가와 그 백성들을 구원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떠나서 범죄 한 이상 그 언약은 파기된 것과 다름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다윗 언약에 근거하여 민족의 구원을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장차 도래할 종말의 때까지 중단 없이 전개될 구속사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 하리라, 너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다윗 가문에 속한 자들이 타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열왕국시대는 물론 바벨론 포로기와 회복기 그리고 중간기까지도 그 언약을 폐지하지 아니하시고 궁극적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그 약속이 온전히 성취될 때까지 언약을 지켜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언약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서는 바로 우리에게 다윗 언약이 발전 전개된 천국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관성과 연속성!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언약을 부여받은 우리의 전존재가 결단코 구원의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근거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히 나가게 하소서. ②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특히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는 일이 일어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시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모세의 작품은 오직 시편 90편 한 편뿐입니다. 모세는 본 시에서 영원자 하나님 앞에 선, 한 연약한 인간으로서 겸허한 탄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영원성과 인간의 연약함을 대비시킴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인간이 참으로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모세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2절). 하나님은 ‘영원자’ 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천년은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다고 말합니다(4절). 반면, 인간은 ‘티끌’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3절).

즉, 인간은 피조물이요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피었다지는 풀과 같다는 것입니다(5절).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일식 간에 다하였다고, 신속히 날아간다고 말합니다(8, 9절).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시 90:12).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소망을 두며 이 땅에 사는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 또한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17절a).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부으소서. ② ‘충현선교훈련원’(CMTC)을 통한 모든 훈련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시는 여호와와 구원의 능력을 체험한 시인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는 자의 안전함과 보호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노래한 시로서 하나님의 현재적 임재와 보호를 보다 현장감 있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시라 말하며 지존자로 거처를 삼으면 화가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9,10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우리의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게 하시기 때문입니다(11절). 그 사자들이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기 때문입니다(12절).

더 나가서 오히려 우리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라고 말씀합니다(13절). 그렇습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혈육이나 나의 지혜와 능력을 나의 거처와 피난처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피난처와 거처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거처로 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더 나아가 악한 세력을 무찌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14절).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막 12:30).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호 6:3).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시고 높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가장 안전한 쉼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힘써 여호와를 알게 하소서. ② 농어촌의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날로 부흥하여 민족복음화의 산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시는 악인이 도처에 횡행하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좌절치 않고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바라보며 그 분의 기이하신 섭리를 찬양하는 시로서 의인과 악인의 삶이 대조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다보면 나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지 알 수 없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5절b). “우준한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6절).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준하고 무지하여 하나님의 깊으신 생각과 그 뜻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무지를 인정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정녕 악인이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홍왕할 지라도 결국은 영원히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7절).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다 홀으실 것입니다(9절b).

반면 의인은 하나님께서 그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시며 신선한 기쁨으로 부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10절). 이처럼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분은 정직하시며 불의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15절). 그렇습니다. 유한하고 죄인인 우리가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기도 제목 / ①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게 하소서. ② 전 교회학교가 오직 ‘말씀과 기도과 전도’를 통하여 놀라운 부흥을 체험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시는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하는 제왕시로서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능력을 힘있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야 하는 이유를 밝히고 못 성도들의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가지신 면모 즉, 만물 위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만물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서 나오는 '큰 물'은 '이방 강대국'을 말하는 것인데(3절- 여호와여 큰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물이 그 소리를 높였고 큰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이를 능히 제어하시는 모습 속에 그분의 주권과 권능과 위엄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소리치며 높이 과도치는 큰 물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으나 이 역시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은 시간적으로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고 공간적으로는 우주만물에 미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향한 우주적 찬양은 지극히 합당한 것입니다. 특별히 구속사적 관점에서 구속사의 주체이신 절대주권자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재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 하는 바른 태도는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질 구원에 대한 소망에서 우리나오는 벅찬 감격을 가지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시로다".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통치자 여호와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기도 제목 / ① 구원의 벅찬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케 하소서. ② 캄보디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송미, 유미나 자매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시는 악의 세력이 관영한 민족적 비극 상황을 개탄하면서도 '보수(報酬)'는 여호와께 속한 것임(신 32:35; 롬 12:19)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먼저 징벌의 근거로 그들의 악행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가증스런 도전임을 고발하고 악인의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한 답변과 선악 간에 도래할 하나님의 필연적인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보수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자신은 다만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임을 고백합니다.

악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리라”(7절). 그러나 이는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러한 악인들을 향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라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라”(9절). 그렇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리하신 하나님의 존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악이 횡행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당신의 백성들은 버리지 아니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14절). 그리고 악인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16, 17절). 그러니 보수는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악인들로 인하여 우리들이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고 이로 인해 번뇌하게 되나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19절). 그렇습니다. 주의 위안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보수는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주의 위안으로 나의 영혼을 즐겁게 하소서. ② 이 땅에 소외받는 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1 과 ●●●●●●●●

헌신

♣ 찬송/ 349장(나 주의 도움 받고자) ♣ 본문/ 고전 11:23-26

들어가면서

이번 주일에는 올해의 마지막 성찬식(6차)이 거행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제정해 주신 귀한 '잔치'에 참여하기 전에 성찬의 의미와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의 자세를 우리 마음에 되새기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 설교는 주의 만찬, 곧 성찬에 참여하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바쳐야 하며 성찬에 참여한 후의 모든 삶에서도 동일한 헌신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와 같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신자들에게는 놀랍고 풍성한 영적 유익이 있게 될 것을 강조함으로써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역공과 공부를 통해서 지난 날 많은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몸을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였는지 점검해보고 회개할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의 각오와 결심으로 이번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십시오.

머물면서

1. 본문 관찰과 묵상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래의 관찰 및 묵상 질문을 풀어보십시오.

⁽²³⁾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²⁴⁾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²⁵⁾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²⁶⁾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1) 23절- 예수님께서 언제 성찬식을 제정해 주셨습니까?

- 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직후에
- ②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 ③ 잡히시던 밤에
- ④ 부활하신 후에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2) 24,25절-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셨습니까?

- ① 일주일에 한 번씩 성찬식을 거행하라
- ②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라
- ③ 나를 기념하라
- ④ 내가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3) 24,25절- 주님은 왜 그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을까요?

4) 24,25절- 성찬식 안에서 예수님을 '기념'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5) 26절- 성찬식에 참여한 신자가 이후의 삶 속에서 헌신해야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주의 을 주님 오실 때까지 것

2. 설교 읽고 서로 나누기

- ◆ 「헌신」의 설교문을 읽으십시오.
- ◆ 읽은 내용을 기억하면서 5분 이상 깊이 묵상하십시오.
- ◆ 설교문을 한 단락씩 끊어 읽으면서 질문을 풀어보십시오.

1) '우리의 마음과 헌신을 요구하는 성찬'의 단락을 읽고...

질문) 성찬식 안에서 예수님을 기념할 때마다 '정말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며 살아야지'라고 헌신을 다짐하게 되는 것은 왜일까요?
답)

2) '모든 신자들이 참여해야 하는 성찬' 의 단락을 읽고...

질문) 어느 날은 우리 자신의 부족하고 더러운 모습들을 보며 낙심하여 성찬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

3) '믿음에 새 힘을 주는 성찬' 의 단락을 읽고...

질문)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새로운 힘을 얻은 경험에 있다면, 크든 작든 그 경험을 겸손하게 간증해 보십시오.

답)

4) '교회의 놀라운 축제인 성찬' 의 단락을 읽고...

질문) 겉으로 볼 때 성찬식은 매우 엄숙하고 무거운 분위기로 진행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찬식이 교회의 놀라운 축제인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답)

5) 「헌신」이라는 설교 전체를 기억하며...

질문) 이번 주일에 거행될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무엇인지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간략하게 말해 보십시오.

답)

나가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 6:35). 오늘 이 자리에서 떡과 잔을 받으며 우리는 십자가를 기억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선포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선포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에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자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식사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과 형제들과 더불어 연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의 만찬이 공급해 주는 힘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야만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준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십시오. 진실한 마음으로 이 놀라운 만찬에 함께 참여하십시오. 오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실 것이며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하는 기도

1. 감사 /
2. 말씀을 기억하며 드리는 간구 /
3. 교회와 단기선교사역을 위한 기도 /
4. 구역식구들을 위한 기도 /

* 인도자가 기도제목을 정해서
5분 이상 합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본문:

제 2 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

♣ 찬송/ 475장(이 세상은 요란하나) ♣ 본문/ 요한복음 16:33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사는 생활을 너무 낭만적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어야 하고 마음도 항상 즐겁고 평안해야 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반대의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늘 환난 속에 삽니다.

이번 주일 설교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겪는 환난이 어떤 것들인지를 밝혀줌으로써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환난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와 은총이 무엇인지도 설명해 줌으로써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줍니다.

이번 공과 공부를 통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환난의 세력을 분별해 보고,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원수가 어떤 것들인지를 확인하며 우리가 정말로 신뢰해야 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물면서

1. 본문 관찰 및 묵상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래의 관찰 문제를 풀어 보십시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1) 33절-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 살 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 ① 약간 힘든 환경
- ② 기쁨과 즐거움만 넘치는 환경
- ③ 환난이라고 부를 만큼 힘든 환경
- ④ 세상으로부터 존경과 우대를 받는 환경

2) 행 14:22-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 살 거라고 말했습니까?

☐ ☐ 환난

참고> 행 14:22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3) 33절- 예수님이나 바울이 말한 환난은 어떤 것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정리해서 말해 보십시오.

4) 33절- 환난을 당하는 신자들에게 주님이 명하시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5) 33절- 신자들이 환난 속에서도 담대해야 하는, 그리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을 이기셨기 때문이다.

6) 33절-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2. 설교 읽고 서로 나누기

- ◆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의 설교문을 천천히 읽으십시오.
- ◆ 읽은 내용을 기억하면서 5분 이상 조용히 묵상하십시오.
- ◆ 설교문을 한 단락씩 끊어 읽으면서 질문을 풀어보십시오.

1) '사자들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단락을 읽고...

질문) 언제, 또 무엇을 보면서 여러분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는 찾는다는 말씀을 실감하십니까?

답)

2) '가시와 전갈들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단락을 읽고...

질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리스도인들을 찌르는 가시와 전갈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 보십시오.

답)

3) '늑대들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단락을 읽고...

질문) 사도행전 20:29,30절을 읽고, 사도 바울의 이 예언이 오늘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의 느낌과 생각을 말해보십시오.

답)

참고> 행 20:29,30 ²⁹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 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³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4) '하나님의 천사들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단락을 읽고...

질문)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던 천군천사들을 보면서(왕하 6:17), 여러분이 느끼고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참고) 왕하 6:15-17 ⁽¹⁵⁾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찌기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아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¹⁶⁾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¹⁷⁾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시매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

5) '하나님의 천사들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단락을 읽고...

질문) 로마서 8장 38,39절 말씀을 읽고 다음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채운 후에 이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답) ⁽³⁸⁾ 내가 확신하노니 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들이나 현재 일이나 일이나 능력이나 ⁽³⁹⁾ 높음이나 이나 다른 아무 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에서 끊을 수 .

6)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의 설교 전체를 기억하며...

질문) 오늘 설교를 읽고 배우면서 새롭게 깨달은 바나 느낀 점을 돌아가면서 말해 보십시오.

답)

나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실천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과 조금만 타협을 해도, 여러분은 여러분 가운데 살고 있는 사자들과 가시들과 전갈들과 늑대들을 보거나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라면, 여러분은 영원토록 여러분 곁에 함께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는 하나님의 천사들 안에서, 위로와 확신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롬 8:38, 39). 아멘.

함께 하는 기도

1. 감사 /
2. 말씀을 기억하며 드리는 간구 /
3. 교회와 단기선교사역을 위한 기도 /
4. 구역식구들을 위한 기도 /

* 인도자가 기도제목을 정해서 5분 이상 합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

본문 :

코리안 교회

1. 서론

1. 두 번째 코리안 교회의 출생

1. 코리안 교회의 출생과 성장

1. 코리안 교회의 출생과 성장

1. 코리안 교회의 출생과 성장

제 3 과.....

교만의 문제

♣ 찬송/ 519장(십자가를 질 수 있나) ♣ 본문/ 마가복음 14장 29-31

들어가면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잠 16:18). 실로 교만 안에는 많은 죄악이 들어있으며, 교만 뒤에는 많은 범죄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결국 넘어지고 멸망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을 경계하고 늘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이번 주일 설교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한 때 마음이 교만하여졌던 베드로를 통해서 교만이 신자들 가운데 어떤 문제들을 일으키는지를 몇 가지로 지적해 주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번 공과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도 교만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공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달아 오직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물면서

1. 본문 관찰 및 묵상

마가복음 14장 29-31절을 중심으로 아래의 관찰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29)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30)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31)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1) 29절- 베드로에게 있었던 확신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는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다.

2) 29절- 왜 베드로는 위와 같이 생각했던 것일까요?

3) 30절- 확신에 가득 찬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이 밤 닭이 번 울기 전에 네가 번 나를 부인하리라”

4) 31절-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① 처음에는 자신을 믿었는데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약간 의심하게 되었다.

② 여전히 자신은 죽어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5) 막 14:71,72-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까? 아니면 자기 말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죽게 됩니까?

참고)막 14:71,72 ⁷¹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⁷²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2. 설교 읽고서로 나누기

- ◆ 「교만의 문제」의 설교문을 천천히 한 번 읽으십시오.
- ◆ 읽은 내용을 기억하면서 5분 이상 조용히 묵상하십시오.
- ◆ 설교문을 한 단락씩 끊어 읽으면서 질문을 풀어보십시오.

1) '교만은 그리스도 대신에 자신을 믿게 만든다'의 단락을 읽고...

질문) 자기 자신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경고합니까?

답)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자요..."(잠 28:26)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조심하라"(고전 10:12).

- 2) '교만은 자기 자랑과 허풍을 낳는다' 의 단락을 읽고...

질문) 예수님이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도 '나는 죽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베드로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십시오.

답)

- 3) '교만은 믿음의 실천을 가로막는다' 의 단락을 읽고...

질문)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었지만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지 않음으로써 실패했던 베드로의 쓰디쓴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있었다면, 그 때 일을 간략하게 말해 보십시오.

답)

- 4) '교만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로 우리를 내몬다' 의 단락을 읽고...

질문) 마음속에 자리잡은 교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로 우리는 몰아가는지 정리해 보고 느낀 점을 말해 보십시오.

답) 교만 ➡ () ➡ () ➡ ()

➡ 예수님을 부인함

5) '교만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로 우리를 내몬다'의 단락을 읽고...

질문) 현재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거나 교만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6) 「교만의 문제」의 설교 전체를 묵상하며...

질문) 이번 설교를 읽고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특별히 깨닫거나 도전받은 일이 있다면, 말씀해 보십시오.

답)

나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은 자기 확신을 자랑하고 과시하기를 좋아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 세상의 것들을 쫓다가 여러분의 구주를 부인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겸손해지십시오. 교만은 자기 확신과 자랑을 낳고, 자기 확신과 자랑은 결국 예수님을 가까이서 지켜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서 지켜보지 못하게 되면 믿음을 실천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저주와 맹세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교만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완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회개했고 남은 생애 동안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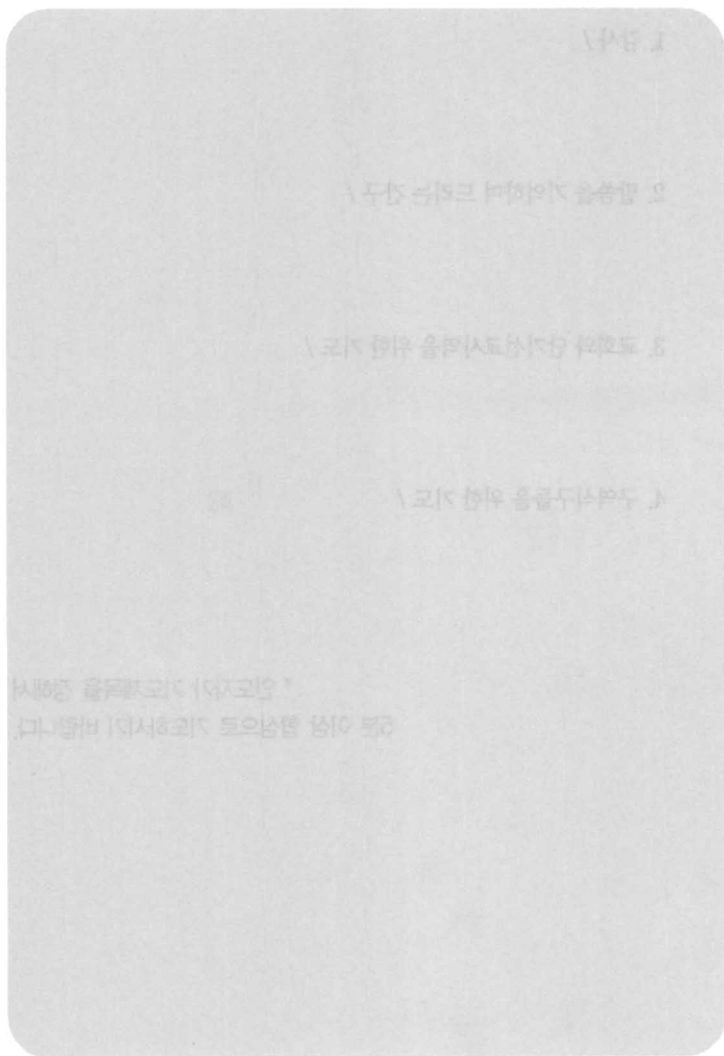
함께 하는 기도

1. 감사 /
2. 말씀을 기억하며 드리는 간구 /
3. 교회와 단기선교사역을 위한 기도 /
4. 구역식구들을 위한 기도 /

* 인도자가 기도제목을 정해서
5분 이상 합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

본문 :



제 4과

새 생명의 본질

♣찬송/ 493장(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본문/ 골로새서 3:15-17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듭남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신기하고 갑작스럽게 뜨거운 체험을 해야 거듭난 것처럼 생각하기에 실제로 거듭났으면서도 자신의 거듭남에 대하여 확신이 없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거듭난 사람에게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열매가 없으면서도 스스로를 거듭난 신자로 확신하며 평생 살아가는 가련한 인생들도 많습니다.

이번 주일 설교는 거듭난 신자의 마음에 맺히게 되어 있는 열매들이 무엇인지를 밝히 설명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거듭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동시에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해야 할 축복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참된 열매가 거듭난 새 생명의 열매임을 강조해 줍니다.

이번 공과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로 거듭난 마음인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에게 주신 참된 축복을 깊이 헤아려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머물면서

1. 본문 관찰 및 묵상

골로새서 3:15-17절을 읽고 다음의 관찰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¹⁵⁾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¹⁶⁾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¹⁷⁾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1) 15절: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이 너희 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하는 자가 되라

2) 16절: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라

모든 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시와 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

마음에 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3) 17절: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든지 에나 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라

- 4) 15-17절: 위에 기록된 여러 가지 명령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들어야 할 계명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2. 설교 읽고 서로 나누기

- ◆ 「새 생명의 본질」의 설교문을 천천히 읽으십시오.
- ◆ 읽은 내용을 기억하면서 5분 이상 조용히 묵상하십시오.
- ◆ 설교문을 한 단락씩 끊어 읽으면서 아래의 질문을 풀어보십시오.

- 1) '정말 새 생명을 얻은 자인가?' 의 단락을 읽고...

질문) '여러분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라는 설교자의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또한 무엇을 보고서 여러분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하는지도 말해 보십시오.

답)

- 2)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는가?' 의 단락을 읽고...

질문) 신자의 마음을 주장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은 무엇입니까?
답)

참고) 요 14: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롬 5: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 3)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는가?' 의 단락을 읽고...

질문) 요즈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얼마만큼이나 누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을 더 깊이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 4)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는가?' 의 단락을 읽고...

질문) 요즈음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풍성히 거하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

- 5) '말도 행동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가?' 의 단락을 읽고...

질문) 아래에 기록된 각각의 상황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답) 기도할 때-

선교할 때-

직장에서 일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때-

6) 「새 생명의 본질」의 설교 전체를 묵상하며...

질문) 이번 설교를 읽고 공부하면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여러분이 특별히 깨닫거나 도전받은 일이 있다면, 말씀해 보십시오.
답)

나가면서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직 위엣 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장소를 여러분 안에 마련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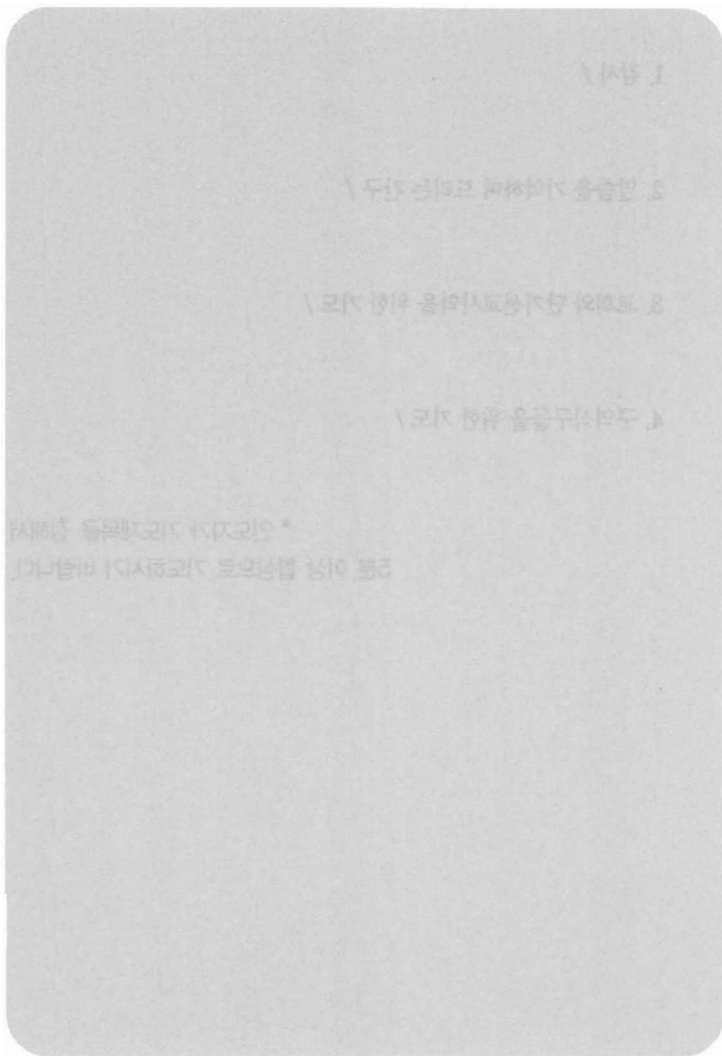
함께 하는 기도

1. 감사 /
2. 말씀을 기억하며 드리는 간구 /
3. 교회와 단기선교사역을 위한 기도 /
4. 구역식구들을 위한 기도 /

* 인도자가 기도제목을 정해서
5분 이상 합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

본문 :



남성도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구역공과	제4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남성도구역공과’는 ‘구역예배공과’ 중 ‘제4과’를 해당공과로 삼아서 공부하기로 합니다.

남성구역공과 설교

새 생명의 본질

¹⁵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¹⁶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¹⁷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 3:15-17)

정말 새 생명을 얻은 자인가?

새 생명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만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계신 저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사람입니다(3:1 참조). 여러분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추구하는 것은 하늘의 것인지요 아니면 땅에 속한 것인지요? 만일 여러분이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갈망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속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가진 신자의 마음을 생생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 3:3). 거듭난 새 생명의 마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는가?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진 신자의 마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통치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스립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5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주장하게 하라’입니다. 새 생명을 소유한 신자의 마음은 여러분 자신의 평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엮여져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매우 깊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만 합니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은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고 용기를 낼 수 있으며 담대할 수 있고 인도를 받을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힘을 공급받을 수 있고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확신은 영원한 구원과 안전을 여러분에게 가져다줍니다. 또 이런 확신은 여러분에게 참 생명을 가져다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도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까? 돈이 많고 가정이 평안하고 일이 잘 되어서 누리는 평강입니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리석게도 이 세상의 축복을 탐하여 울며불며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순종하는 마음을 다스립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신다면, 여러분은 평강을 누릴 것입니다. 태어나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믿음과 순종으로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 14:27). 이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요 16:33). 오늘날 너무나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신자들로 하여금 이 세상 것들을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칩니다. 명예, 자녀들, 경제적인 성공들을 귀하게 여기도록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는 감추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빼놓고 생각하면 이 세상의 축복들이 가장 좋게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게 보일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의 평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속에 풍성히 거하는가?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진 신자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16절).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의 마음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설명하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또는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떤 사람의 마음 속에 거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자체적으로 평강을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이 세상 것들이 잔뜩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정결케 하며 예수님이 거하실 장소를 마련함으로써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신 6:6-7). 우리는 이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이 세상 것들로 가득차 있을 것입니

다. 그러나 위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귀한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 15:7). 세속적인 대화를 피해야만 합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불경건하게 만들 뿐입니다. 예수님을 빼놓고 무엇을 생각하게 될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딤후 3:16).

말도 행동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가?

거듭난 새 생명을 소유한 신자의 마음 속에는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17절).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도 예수님의 이름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러진 기도만 들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처럼 아름답고 권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신자는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고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은 말합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요한복음 20장 31절은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깊은 감사를 느끼고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고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신자들은 하나님께 감

사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신자들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골로새서 3장 23절은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고전 10:31 참조).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된 여러분의 의무입니다(엡 5:20 참조).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직 위엣 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장소를 여러분 안에 마련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아멘.

이제부터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직 위엣 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장소를 여러분 안에 마련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아멘.

가정예배 안내

예배순서

찬 송	과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도	과 같이
주기도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말씀을 봉독

출현의 만나 / 2004년 11월호 / 발행인 / 김성관 / 편집인 / 박광현
집필진 / 만나 / 이경준(1-10일), 윤수일(11-20일) / 김준희(21-30일)
구역예배공과 / 이태복 목사
발행처 / 중한교회 출판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물]